

# 김정 <우도가>의 이본 고찰\*

윤치부\*\*

## 차 례

1. 머리말
2. 서지적 개관
3. 이본의 대교
4. 대교 결과에 대한 분석
5. 맺음말

### | 국문초록 |

이 글은 충암 김정이 제주에 유배 왔을 때 제주판관의 처남 방순헌이 제주 동쪽에 있는 섬 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우도를 노래한 칠언배율의 <우도가>에 대한 이본 연구이다. 이를 통해 그 정본과 이본들의 계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김정의 <우도가>를 수록한 문헌들로는 크게 김정의 작품들을 수집하여 간행한 충암집류, 제주 지지에 수록된 탐라지류, 제주에 안무어사로 왔던 경험을 기록한 남사록류, 당시 시인 묵객 등의 언행 등에 관한 사실을 듣고 본 대로 기록한 패관잡기류,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한 개인의 평생에 걸쳐 정리한 문학과 역사를 기술한 심재집류 등으로 나누어진다. 충암집류에는 임자본·병자본·임술본·정해본 등의 이본이 있는데, 오자가 없는 대신 33구 231자의 불안정한 구성으로 제24구 이후에서는 평측과 운자가 통일되지 않아 오언배율의 형식을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4구는 제23구와도 대구가 되지 않았다. 탐라지류에는 이원진의 『탐라지』, 윤시동의 『증보탐라지』,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등이 있는데, 충암집류와는 달리 제24구가 결구됨으로써 전체적으로 평측과 운자가 압운되고, 문맥상으로도 오히려 탄탄한 구성을 이루었다. 남사록류는 규장각본과 청음유집본이 있는데, 탐라지 계통이었고, 패관잡기류는 전

\*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기까지에는 2015년 경주김씨 충암가 종손이신 김응일 님으로부터 기탁받아 대전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충암집』 초간본 자료를 제공해주신 류용환 대전시립박물관장님과 김혜영 연구사님의 배려 때문임을 밝혀둔다.

\*\* 제주대학교

사본과 활자본이 있는데, 총암집 계통이었다. 심재집류는 남사록류처럼 탐라지 계통이었다. 이본들 사이에서는 오자·동자·속자·약자·통자·결자 등을 중심으로 적잖은 변이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핵심어 : 우도가, 김정, 총암집, 탐라지, 남사록, 패관잡기, 심재집

## 1. 머리말

김정(金淨)의 〈우도가〉<sup>1)</sup>는 총암(沖庵)이 제주에 유배 왔을 때 제주판관의 처남 방순현(方舜賢)이<sup>2)</sup> 제주 동쪽에 있는 섬 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노래한 칠언배율이다. 직접 눈으로 본 듯이 중국의 수많은 전고(典故)를 인용하여 전설 같은 이야기를 덧붙여 신화와 전설의 우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도가〉에 대하여 일찍이 허균(許筠)은 그의 시비 평집 『성수시화(惺叟詩話)』에서 “우도가는 심오하고 황홀하며 미묘하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며 가진 재치를 다 부렸다. 그래서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은 그를 추존하여 장길(長吉) 이하(李賀)에게 견주었다.”<sup>3)</sup>고 말하고 있다. 또한

- 1) 원제는 〈방생의 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노래로 정취를 부치다(聞方生談牛島歌以寄興)〉이다. 그런데 이 원제는 ‘聞方生談牛島歌以寄興’보다는 주로 ‘聞方生談牛島歌以寄興’으로 기억았는데(金淨, 金鍾燮譯, 『國譯 沖庵集』下, 沖庵文簡公宗中, 1988, 133쪽. : 〈海島錄, 聞方生談牛島歌以寄興〉, 『沖庵先生集』卷之三(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총암집』의 초간본인 임자본(1552, 許伯琦跋)을 유심히 살펴보면 좌번획이 물수 [讠]가 아니라 말씀언 [言]의 초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 〈우도가(牛島歌)〉라고 한다.
- 2) 김정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말미에는 방생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주에는 방생을 판관의 처남 방순현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바다 밖에서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하고 있다.(金淨, 〈文, 濟州風土錄〉, 『沖庵集』卷之四 生名舜賢, 判官之妻甥. 學儒, 於吾輩事, 頗聞風, 持意足多, 稍可談話, 而染俗乏雅, 於江湖無入處. 然海外遇斯人, 豈非幸甚歟.) 당시의 제주판관은 1520년(중종 15) 박한필(朴漢弼)의 후임으로 도입했던 진세인(秦世仁)으로 재임 중 1523년 1월 사망하였다.(담수계 편, 〈관풍안〉, 『증보탐라지』, 김찬흡 외 9인 공역, 제주문화원, 2005, 748쪽.)
- 3) 許筠, 〈說部 四, 惺叟詩話, 申企齋以金沖庵詩爲長吉之比〉, 『惺所覆瓿稿』 25 其牛島歌,

어숙권(魚叔權)은 그의 수필집 『패관잡기(裨官雜記)』에서 “충암이 제주로 귀양가서 방생(方生)이 우도를 이야기한 노래를 지었는데, 꼭 귀신과 신선의 말 같았다.”<sup>4)</sup>고 하여 <우도가>를 극찬하고 있다.

<우도가>에 대한 이러한 평가들은 여러 이본에 수록된 자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여러 문헌들에 수록될 정도로 꾸준히 회자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우도가>는 『충암집』은 물론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 윤시동(尹善東)의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어숙권의 『패관잡기』, 이원조(李源祚)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김석익(金錫翼)의 『심재집(心齋集)』 등에 그 전문이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학계에서는 <우도가>에 대한 논의가 미미한 편이었다. 1980년대에 양순필이 충암의 제주 유배한시를 고찰하면서 ‘유배당한 몸으로 현세의 일체에서 은둔도피하려는 심정과 자연애를 노래한 작품’으로 살피고 있는 논문이 눈에 띄 정도다.<sup>5)</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도가> 연구의 첫 과제로 이본 간의 고찰을 중점적으로 시도하여 이 작품의 변이 양상을 파악하고 이본 간의 계통을 파악함으로써 본격적인 <우도가> 연구의 출발점을 삼고자 한다. 특히 칠언배율의 <우도가>가 33구 231자의 불완전한 구성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후속 논문에서 신광한과 허균과 어숙권이 왜 직간접으로 이 작품을 그토록 극찬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찰할 것이다.

眇冥愴况，或幽或顯，極才人之致，申企齋推以爲長吉之比也。(許筠, 『許筠全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81, 234쪽.)

4) 魚叔權 外, <裨官雜記>三, 『大東野乘』卷之四(奎章閣本) 金沖庵竄濟州, 作方生談牛島歌, 正如鬼仙之語.

5) 梁淳秘, 「沖庵의 濟州流配漢詩小考」, 『論文集』20(인문학편), 제주대학교, 1985, 56~57쪽.

## 2. 서지적 개관

지금까지 밝혀진 <우도가>의 수록 문헌으로는 『충암집』(임자본·병자본·임술본·정해본)<sup>6)</sup>·『탐라지』(이원진)·『남사록』(규장각본·청음유집본)·『증보탐라지』(윤시동)·『패관잡기』(전사본·활자본)·『탐라지초본』(이원조)·『심재집』 등 7책 12종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7책 12종의 이본을 중심으로 이들 문헌들의 <우도가> 수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2.1. 충암집류 소재 우도가

『충암집』은 조선 중기의 문신 김정(1522~1592)의 시문집으로 1552년(명종 7) 공주목사로 재직하던 허백기(許伯琦)가 간행한 목판본 초간본, 증손 금산수(錦山守) 김성발(金聲發)이 초간본의 편차를 일부 수정하여 1636년(인조 14) 5권 5책의 목판본 중간본, 이후 1947년 후손 김병희(金秉熙)·김기흥(金基興) 등이 본집 5권과 연보 2권을 합하여 7책으로 간행한 석인본 삼간본, 1972년 15세손 김홍만(金洪萬)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저자와 관련된 기록을 채록하고 보충하여 간행한 사간본 등이 있다. 현존하는 판본을 그 간행 순서에 따라서 분류하면 임자본(1552, 許伯琦跋), 병자본(1636, 金聲發跋), 을미본(1835, 吳熙常校), 임술본(1922, 金基善刻), 정해본(1947, 金秉熙·金基興刻), 임자본(1972, 金洪萬刻), 조선시대 말기에 간행한 목활자본 등으로 구분된다.

임자본은 김정이 죽고 30여 년이 지난 1549년(명종 4) 당질(堂姪)인 김천우(金天宇)가 집에 소장하고 있던 초고를 바탕으로 수집하여 기재 신광한에게 교정과 산정을 부탁하였으나 김천우의 사망으로 간행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때 공주목사 허백기가 기재가 편찬한 정고본(定稿本)과 자신이 구한 초고와

6) 『충암집』은 여러 이본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연보만을 별도로 간행한 을미본 등을 제외한 간행 연대가 비교적 정확한 임자본(1552)·병자본(1636)·임술본(1922)·정해본(1947)에 한정해서 이본의 변이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함께 교정하고 본집과 외집으로 편집하여 1552년 5월 공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그 후 속리산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던 판목이 임진왜란으로 일부 닳아서 흐려지자 1600년(선조 33)에 완결된 부분을 개정 증보하여 나중에 인쇄하기도 하였다.<sup>7)</sup> 최근에 경주김씨 충암가 종손인 김응일이 소장하다 대전시립박물관에 기탁하여 2016년 11월의 문화재로 전시한 『충암집』과 일본존경각문고에 있는 『충암집』이 바로 이 임자본이다. 한 페이지가 9행 18자로, 주는 쌍행으로 구성되었다. 일본존경각문고본은 1988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영인하여 보관하고 있다.<sup>8)</sup> 이 가운데 <우도가>는 『충암집』 권3의 <해도록(海島錄)> 중 <더위에 시달려 중야공에게 받들어 올려 대자리를 요구하다(苦熱奉簡仲野公求竹簟詩)> 다음에 수록되었으며, 제목이 페이지의 첫 행부터 시작되어 다음 페이지 6행까지 수록되었다. 그 뒤에는 <승려의 시축에 쓰다(題僧軸詩)>가 수록되었는데, 이 시의 제목의 아래에는 “이 이하는 전해 들어서 기록 중에 없다(此下皆傳聞而不在錄中)”라는 쌍행주가 있다.<sup>9)</sup>

병자본은 1632년(인조 10) 증손 김성발이 금산군수로 부임하자 문집을 다시 출간하려는 뜻이 있었으나 고을이 어수선하고 때가 어려워 시일을 끝다가 5년이 지나 사재를 대어 재목을 모으고 장인을 불러서 간행을 시작하여 5개월 만인 1636년 5월 5권 5책의 목판본으로 금산에서 간행하였다. 초간본 원집에 외집을 시간의 선후에 따라 섞어 편차를 바로잡고, 한충(韓忠)의 <사직소(辭職疏)>는 문집에 잘못 수록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한 페이지가 9행 18자로, 주는 쌍행으로 구성되었고, 구점(句點)이 찍혔다. 이 병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우도가>는 임자본처럼 『충암집』 권3의 <해도록> 중 <더위에 시달려 중야공에게 받들어 올려 대자리를 요구하다> 다음에 수록되었으며, 제목이 페이지의 첫 행부터 시작되어 다음 페이지 6행

7) 이미실, 「해제」, 『충암집』(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중간 해제)

8)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영인하여 청구기호 G3648-10-576으로 분류하여 소장하고 있다.

9) 金淨, <海島錄, 聞方生談牛島歌以寄興>, 『冲庵集』 卷之三(大田市立博物館本), 1552.

까지 수록되었다. 그 뒤에는 〈승려의 시축에 쓰다〉가 수록되었는데, 이 시의 제목의 아래에는 임자본과 달리 “스님 이름은 목간인데, 목간이 경산으로부터 바다를 건너와 시를 요구하다.(僧名目侃, 目京山渡海索詩云.)”라는 쌍행주가 있다.<sup>10)</sup>

을미본은 저자의 연보만을 별도로 간행한 것으로 집에 소장하고 있던 구분(舊本)을 영조 연간에 김원행(金元行)이 교감(校勘)한 후, 9세손 김상협(金商協)이 아들 김성태(金聖泰)와 함께 여러 집안의 논술 문자를 부록으로 엮어 오희상(吳熙常)에게 교정을 부탁하여 1835년(헌종 원년) 상하 2책의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한 페이지가 10행 18자로 구성되었다. 특히 한국문집총간으로 간행된 『충암집』은 바로 병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본 5권과 이 을미본 2권을 합친 7책으로 총382판이다.<sup>11)</sup>

임술본은 1922년 3월 김기선이 충청북도 보은에서 발행하고 있다. 신광한의 서문과 허백기와 김성발의 발문만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병자본을 재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말미에는 인쇄와 발행 날짜 및 저작자·발행자·인쇄자를 주소와 함께 정확히 밝히고 있다. 발행자는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상방리 278번지 5의 김기선이라고 적었고, 인쇄자는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3번지의 허형(許洞)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 페이지가 9행 18자로, 쌍행주로 구성되었으며, 활자의 글씨체가 일정하지 않다. 이 가운데 〈우도가〉는 임자본이나 병자본처럼 『충암집』 권3의 〈해도록〉 중 〈더위에 시달려 중야공에게 받들어 올려 대자리를 요구하다〉 다음에 수록되었는데, 제목이 페이지의 첫 행부터 시작되어 다음 페이지 6행까지 수록되었다.<sup>12)</sup>

정해본은 1947년 여름 후손 김병희·김기홍이 문집 5권과 연보 2권을 합책하여 석인본으로 간행하였다. 편차와 체제는 병자본 본집과 을미본 연보의 편차

10) 金淨, 앞의 책(奎章閣本), 1636.

11) 民族文化推進會, 『『沖庵集』凡例』,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23(思齋集·沖庵集·陽谷集·松齋集), 景仁文化社, 1990.

12) 金淨, 앞의 책(國立中央圖書館本), 1922.

를 따랐다. 안재곤(安載坤)이 교열하고 오지수(五志洙)가 서문을 썼다. 한 페이지가 9행 18자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우도가>는 임자본이나 병자본처럼 『충암집』 권3의 <해도록> 중 <더위에 시달려 중야공에게 받들어 올려 대자리를 요구하다> 다음에 수록되었는데, 제목이 페이지의 첫 행부터 시작되어 다음 페이지 6행까지 수록되었다.<sup>13)</sup>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었다.

임자본은 1972년 15세손 김홍만(金洪萬)이 문집 5권 1책과 연보 2권 1책을 석인본으로 간행하였다. 이 임자본에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새로이 채록한 기사를 연보에 추가하였으며, 성구용(成九鏞)이 쓴 서문과 1895년 여름 송계간(宋啓幹)이 쓴 연보 발문과 1891년 겨울 오희상이 쓴 연보 서문이 수록되었다. 한 페이지가 12행 28자로 구성되었다. 이 임자본은 전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었다.

또한 간행연대가 정확하지 않은 조선시대 말기에 다시금 새로이 병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한 목활자본이 있다. 한 페이지가 10행 20자이고, 쌍행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우도가>는 역시 『충암집』 권3의 <해도록> 중 <더위에 시달려 중야공에게 받들어 올려 대자리를 요구하다> 다음에 수록되었으며, 제목이 페이지의 4행부터 시작되어 다음 페이지 6행까지 수록되었다. 그 뒤에는 <승려의 시축에 쓰다>가 수록되었는데, 이 시의 제목의 아래에는 병자본과 달리 “스님 이름은 목간인데, 경산으로부터 바다를 건너와 시를 요구하다.(僧名目侃, 自京山渡海索詩云.)”라는 쌍행주가 있다.<sup>14)</sup>

## 2.2. 탐라지류 소재 우도가

지금까지 <우도가>가 수록된 탐라지류에는 이원진의 『탐라지』, 윤시동의 『증보탐라지』,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등이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는 그가 제주목사로 재임하던 1653년(효종 4) 가을에 당시 전적(典籍) 고희진(高弘進)

13) 金淨, 앞의 책(高麗大學校圖書館本), 1947.

14) 金淨, 앞의 책(國立中央圖書館本)

의 감교(監校)로 완성되어 목판으로 간행되었던 현존 최고의 제주 지지이다.<sup>15)</sup> 이원진은 1651년(효종 2) 7월 제주목사로 도임하였다가 1653년 10월에 이임하고 있는데, 『탐라지』는 바로 이 무렵의 기록이다. 이 책은 옛 제주의 세 고을인 제주목·정의현·대정현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 그 하위에 <건치연혁(建置沿革)> 편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제영> 편<sup>16)</sup>까지 기술하고 있다. 책의 맨 뒤에는 계사년(1653년) 9월 상순에 황해도 평성(平城) 사람 신찬(申纘)이 쓴 발문이 수록되었다.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우도가>는 이 가운데 제주목의 <제영> 편에 수록되었고, 바로 앞에는 김종직의 <탁라가(毛羅歌)> 14수가 수록되었으며, 뒤에는 김응남(金應南)의 <관덕정시(觀德亭詩)>가 수록되었다.<sup>17)</sup>

윤시동의 『증보탐라지』는 그가 제주목사로 있던 1765년(영조 41)에 간행된 책으로 추정되는 바<sup>18)</sup> 이원진의 『탐라지』가 간행되고 110여 년이 지난 다음이다. 윤시동은 1765년 8월 제주목사로 도임하였다가 이듬해 9월에 이임하였는데, 『증보탐라지』는 바로 이 무렵의 기록이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이원진 『탐라지』의 체제를 따르고 있으나 정의현과 대정현에 <제영> 편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아홉 진에 대한 <구진(九鎭)>, 옛날부터의 일들을 기록한 <고금사적(古今事蹟)>, 열성조에서 특별히 임명한 어사가 조사한 민폐인 <열조특전어사순막(列朝特典御使詢瘼)>, 표류한 배를 맞이하고 보내며 다른 나라의 정황을 묻은 <표선접송이국문정(漂船接送異國問情)>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원본은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었다. 이 가운데 <우도가>는 이원진의 『탐라지』와는 달리 <제영> 편이 아닌 <산천> 편에 제주의 섬들을 소개하면서 우도에 대한 설명 다음에 김상헌(金尙憲)의 <우도시(牛島詩)>와 함께 추

15) 김행옥, 「탐라지 해제」,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203쪽.

16) 정의현에서는 열녀편, 대정현에서는 고적편까지 기술하고 있다.

17) 李元鎭, 『耽羅志』(影印),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1, 122~123쪽.; 李元鎭, 『耽羅志』(影印), 푸른역사, 2002, 117~118쪽.

18) 김영길, 「역자가 뒤에 붙이는 이야기」, 『國譯增補耽羅誌』, 濟州特別自治道·濟州文化院, 2016, 1048쪽.



가하였다.<sup>19)</sup>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은 그가 제주목사로 재임하던 1843년(헌종 9)에 기록한 필사본으로 윤시동의 『증보탐라지』보다 80여 년이 지난 후이다. 이 책은 모두 4권으로 되었는데, 1권에는 제주목의 <건치연혁> 편부터 <학교> 편까지 15개 항목, 2권에는 제주목의 <공해(公廡)> 편부터 <고적> 편까지 21개 항목, 3권에는 제주목의 <기문(奇聞)> 편부터 <판관(判官)> 편까지 8개 항목, 4권에는 정의현과 대정현의 항목들이 제주목과 함께 수록되어 있으나 내용이 없는 일부 항목들은 생략되었다. 이 가운데 김정의 <우도가>는 <도서(島嶼)> 편에 김상현의 <우도시>와 함께 수록되었다.<sup>20)</sup>

### 2.3. 남사록류 소재 우도가

김상현의 『남사록』은 1601년(선조 34) 제주도에서 발생한 길운절(吉雲節)의 역옥(逆獄)을 다스리기 위한 안무어사로 파견되었다가 이듬해 복명하기까지의 제주의 인구·기후·역사·지리·물산·풍속·언어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목민관들의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 왜구의 침범에 대비한 성곽·군사·군량·병기, 나라에서 수렴하는 토산물의 수량, 이르는 곳마다 읊은 한시 등을 모아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sup>21)</sup>

지금까지 전해지는 『남사록』은 대개 세 이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는 김상현의 손자 김수증(金壽增)이 지은 『와유록(臥遊錄)』 속에 수록된 것으로 극히 일부분의 내용만 발췌하고 있어 그 전모를 알 수 없다. 그러다보니 김정의 <우도가> 또한 이 발췌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sup>22)</sup>

19) 尹著東, 『影印增補耽羅誌』(日本天理大學圖書館本), 濟州特別自治道·濟州文化院, 2016, 34~35쪽.

20) 李源祚, 『耽羅誌草本(上)』(影印), 濟州教育博物館, 2007, 24쪽.

21) 金禧東, 「해제」, 『南槎錄』, 永嘉文化社, 1992, 3쪽.

2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臥遊錄』(韓國學資料叢書 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340~343쪽.

둘째는 4권 2책의 규장각본이다. 특별한 서문이나 발문이 수록되지 않아 정확히 간행연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송자대전(宋子大典)』 권137에 송시열(宋時烈)의 『남사록』 서문이 수록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1669년(현종 10)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이인(李瑱) 목사가 김수증에게 『남사록』의 간행을 요청하여 자신이 서문을 쓰게 되었다고 전한다.<sup>23)</sup> 따라서 현재 전하는 규장각본이 바로 이때 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규장각본의 간행연대는 송시열의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1669년으로 추정된다. 2권 1책이 합철되어 있고, 앞의 2권 1책에는 권1과 권2에 해당하며, 뒤의 2권 1책은 권3과 권4에 해당한다. 이 중 김정희의 〈우도가〉는 권3에 수록되었는데, 두 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었다. 한 페이지는 10줄로 세로쓰기하고 있으며, 한 줄은 18자로 띄어쓰기 없이 내려쓰기하였다. 처음 시작은 ‘우도가’의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 ‘충암(沖庵)’이라는 김정희의 호를 적었다.<sup>24)</sup>

셋째는 판본이 아닌 복사본이다. 1977년 김상현의 14대손 김창현(金彰顯)이 『청음선생집』에 수록되지 않은 시문을 모아 『청음유집(淸陰遺集)』을 전사하였다. 여기에 『남사록』이 전하는데, 김창현의 발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장각본을 취해서 그 내용의 순서를 정리하고 책의 편차와 권수를 가다듬어 재정리한 것이다.<sup>25)</sup> 따라서 『청음유집』 권2의 맨 처음 네 페이지에 송시열의 서문이 수록되었으며, 김정희의 〈우도가〉는 『청음유집』 권3의 6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 수록되었다. 『청음유집』은 전사본으로 한 페이지에 열두 줄로 되어 있는데, 본문에 비해 두 자 정도 내려쓰기하고 있으며, 보통 한 줄에는 20자를 띄어쓰기 없이 적고 있다. 또한 페이지를 표시하는 장마다 상단에는 ‘淸陰遺集’의 서명을 적고 그 바로 밑에 권수 표시를 했으며, 하단에는 페이지 표시를 하고 있다. 『남사록』에 수록된 〈우도가〉는 만력(萬曆) 신축년(1601년) 10월 13일 정

23) 宋時烈, 〈序, 南槎錄序〉, 『宋子大全』 卷一百三十七 星山李侯瑱爲其州牧, 爲請是緣於先生之孫壽增諸人.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24) 濟州道, 『濟州史資料叢書(Ⅰ)』(影印), 濟州道, 1998, 403~404쪽.

25) 洪琦杓, 「청음 김상현의 『남사록』 해제 : 역사 서문에 대하여」, 『南槎錄 譯註(上)』, 2008, 濟州文化院, 2008, 17쪽.

축조에 기록되었다. 이 날에는 성산의 진해당(鎭海堂)에서 자고 별방(別防)을 거쳐 산성(山城)에 올라 형세를 둘러보고 우도를 보고자 하였으나 역풍 때문에 실행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그가 실제로 관찰한 성산에 대한 내용과 지지(地誌) 및 임제(林梯)의 『남명소승(南溟小乘)』에 수록된 성산에 대한 내용들을 인용하여 정리하면서 자신이 쓴 <우도시>와 김정의 <우도가>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sup>26)</sup>

#### 2.4. 패관잡기 소재 우도가

『패관잡기』는 조선 명종 때의 학자 어숙권이 명나라에 내왕한 사절들이나 요동과 일본 등의 풍속 및 당시 시인 묵객 등의 언행 등에 관한 사실들을 듣고 본 대로 기록한 수필집으로 모두 6권으로 되어 있다. 현존하는 『패관잡기』는 『대동야승』에 수록된 4권과 『시화총림』 권2에 초록된 시화 부분이다. 『대동야승』의 편찬 시기는 대체로 숙종 말에서 영정조 사이일 것으로 추정되며, 『대동야승』 전사본 72권 72책이 규장각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동야승』은 1909년부터 1911년까지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에서 13책으로 인행하였고, 1968년 경희출판사(慶熙出版社)에서 이를 축쇄하여 4책으로 간행하였다. 『패관잡기』의 역본은 1971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낸 『국역 대동야승』 I에 들어 있다. 이 중 <우도가>는 『패관잡기』3에 수록되었다. “충암이 제주로 귀양 가서 방생이 우도를 이야기한 노래를 지었는데, 꼭 귀신과 신선의 말 같아서 어숙권이 낙촌(駱村) 박충원(朴忠元)에게 <우도가>에 대해서 물으니 세상에 충암을 제외하고는 어찌 이런 작품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대답하여 어숙권과 소견이 같았다”<sup>27)</sup>고 밝히면서 <우도가> 전문을 소개하고 있다.<sup>28)</sup>

4권 4책의 필사본인 『시화총림』은 규장각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1973년

26) 金尙憲, 『南槎錄 譯註(上)』(影印), 濟州文化院, 2008, 123~124쪽.

27) 魚叔權 外, 앞의 책, 余問駱村村公曰, 沖庵牛島歌如何, 駱村曰, 世間除長吉, 安能有此作, 所見與余同也.

28) 위의 책. ; 어숙권 외, 『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회, 1971, 764쪽.

아세아문화사(亞細亞文化社)에서 복사·간행하였다. 이 『시화총림』은 시화에 관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함으로써 〈우도가〉의 전문이 수록되지 않았다.

## 2.5. 심재집 소재 우도가

『심재집』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김석익(金錫翼)이 평생에 걸쳐 정리한 문학과 역사를 기술한 필사본이다. 문학에는 시·서(序)·전(傳)·기(記)·행장(行狀)·묘표(墓表)·문(文)·고사(告辭)·찬(贊)·근역시화(槿域詩話) 등이 수록되었고, 사학에는 『탐라기년(耽羅紀年)』·『탐라지』·『탐라관풍안(耽羅觀風案)』·『파한록상(破閑錄上)』·『해상일사하(海上逸史下)』·『탐라인물고』 등이 수록되었다. 이 중 〈우도가〉는 『근역시화』에 수록되었다.<sup>29)</sup> 한 페이지는 열두 줄로 되어있으며, 한 줄에는 19자를 세로쓰기하고 있다. 첫 줄에는 ‘牛島歌’라는 제목을 밝히고 그 바로 아래에 ‘沖庵 金淨’이라고 작자를 밝혔다. 이어 “우도는 제주 바다 속에 있었는데, 고려 목종 10년 상서로운 산이 탐라 바다 속에서 용출하니 바로 이 섬이다.”라는 〈우도가서〉를 적었다.<sup>30)</sup>

## 3. 일본의 대교

일본의 대교에서는 〈우도가〉가 수록된 충암집류, 탐라지류, 남사록류, 패관잡기류, 심재집류 등 12종의 이본들을 대교함으로써 일본의 변이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12종의 이본에 대한 대교를 마치고 나서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대교표를 다시 정리하였다. 첫째, 오자(誤字)·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통자(通字)·결자(缺字) 등을 모두 조사하였다. 둘째, 분명한 오자·동자·속자·약자·통자·결자만을 비교란에 표기하였다.

29) 金錫翼, 『心齋集』(影印), 濟州文化社, 1990, 318~319쪽.

30) 金錫翼, 〈牛島歌序〉, 위의 책, 牛島在濟州海中, 高麗穆宗十年瑞山湧出耽羅海中者, 卽此島也.

표 1. <우도가> 12종 이본 대교표

句·字	총암집				탐라지			남사록		패관잡기		심재집	비고
	임자본	병자본	임술본	정해본	이원진	윤시동	이원조	규장각본	청음유집본	전사본	활자본		
1-6	扌	扌	扌	扌	扌	扌	柱	扌	扌	柱	柱	扌	
2-3	闕	闕	闕	闕	闕	闕	闕	闕	闕	闕	闕	闕	闕은 闕의 俗字
3-1	群	群	群	群	群	群	羣	羣	群	羣	羣	群	羣은 群과 同字
3-2	仙	仙	仙	仙	仙	仙	仙	仙	仙	仙	仙	仙	仙은 仙의 俗字
4-2	聶	聶	聶	聶	聶	聶	聶	聶	聶	聶	聶	聶	聶은 聶의 誤字
5-2	開	開	開	開	開	開	間	開	開	開	開	開	開은 開의 俗字 間은 開의 誤字 間은 間의 俗字
5-6	湧	湧	湧	湧	湧	湧	湧	湧	湧	湧	湧	湧	
7-5	噬	噬	噬	噬	噬	噬	噬	噬	噬	噬	噬	噬	噬는 噬의 誤字
8-1	唵	唵	唵	唵	唵	唵	唵	唵	唵	唵	唵	唵	
8-2	𪗇	𪗇	𪗇	𪗇	𪗇	𪗇	𪗇	𪗇	𪗇	𪗇	𪗇	𪗇	
9-6	纈	纈	纈	纈	纈	纈	纈	纈	纈	纈	纈	纈	纈은 纈의 誤字
9-7	殷	殷	殷	殷	殷	殷	殷	殷	殷	殷	殷	銀	銀은 殷의 誤字
10-7	螿	螿	螿	螿	螿	螿	螿	螿	螿	螿	螿	螿	螿은 螿의 誤字
11-4	濕	濕	濕	濕	濕	濕	表	濕	濕	濕	濕	濕	濕은 濕의 俗字 表는 濕의 誤字
12-1	壺	壺	壺	壺	壺	壺	壺	壺	壺	囊	囊	壺	囊은 壺의 誤字
12-4	碧	碧	碧	碧	碧	壁	壁	碧	碧	碧	碧	碧	壁은 碧의 誤字
12-5	躔	躔	躔	躔	躔	躔	躔	躔	躔	森	森	躔	
13-3	淵	淵	淵	淵	淵	淵	淵	淵	淵	淵	淵	淵	淵은 淵의 俗字
14-4	〃	〃	〃	〃	隱	隱	隱	隱	隱	〃	隱	〃	
16-2	簫	簫	簫	簫	簫	簫	簫	簫	簫	簫	簫	簫	簫는 簫의 誤字 簫은 簫의 誤字

句·字	총암집				담라지			남사록		패관잡기		심재집	비고
	임자본	병자본	임술본	정해본	이원진	윤시등	이원조	규장각본	청음유집본	전사본	활자본		
16-3	窳	窳	窳	窳	窳	窳	窳	窳	窳	窳	窳	窳	窳는窳의同字 窳는窳의通字
16-5	来	来	来	来	來	来	来	来	來	来	来	来	来는来的俗字
17-1	宛	宛	宛	宛	完	完	頑	完	完	宛	宛	完	完은宛의誤字 頑은宛의誤字
18-1	麤	麤	麤	麤	麤	麤	麤	麤	麤	麤	麤	麤	麤는麤의俗字 麤는麤의同字
21-2	虬	虬	虬	虬	蚪	蚪	蚪	蚪	蚪	蚪	蚪	蚪	蚪는蚪의同字
22-7	嬾	嬾	嬾	嬾	玲	嬾	嬾	嬾	嬾	嬾	嬾	嬾	玲은嬾의誤字
23-2	沉	沉	沉	沉	沉	沈	沉	沉	沈	沉	沉	沉	沉은沈의俗字
24-1	邪	邪	邪	邪						邪	邪		
24-2	鱗	鱗	鱗	鱗						鱗	鱗		
24-3	頑	頑	頑	頑						頑	頑		
24-4	甲	甲	甲	甲						甲	甲		
24-5	毒	毒	毒	毒						毒	毒		
24-6	風	風	風	風						風	風		
24-7	腥	腥	腥	腥						腥	腥		
25-1	太	太	太	太	太	大	太	大	太	太	太	太	大는太의誤字
25-4	窟	窟	窟	窟	窟	窟	窟	窟	窟	精	精	窟	
26-7	蹟	蹟	蹟	蹟	蹟	跡	蹟	跡	蹟	蹟	蹟	蹟	蹟은蹟의同字
27-4	境	境	境	境	境	境	境	境	境	域	域	境	
28-3	拏	拏	拏	拏	拏	拏	拏	拏	拏	拏	拏	拏	拏는拏의俗字
28-5	攬	攬	攬	攬	攬	攬	攬	攬	攬	攬	攬	攬	
29-1	鐵	鐵	鐵	鐵	鐵	鉄	鐵	鐵	鐵	鐵	鐵	鐵	鉄은鐵의略字

대교 결과 오자가 가장 많이 쓰인 이본은 『심재집』으로 모두 6곳이고, 다음으로 『탐라지초본』(이원조)이 4곳, 『패관잡기』(활자본)가 3곳에서 오자가 쓰였다. 이어 『탐라지』(이원진)·『증보탐라지』(윤시동)·『남사록』(규장각본·청음유집본)이 각각 2곳, 『패관잡기』(필사본)가 1곳이다.

동자도 몇몇 이본에 사용되었다. ‘群仙→羣仙(3-1), 窳窳→舜窳(16-3), 龕鵬→龕鵬(18-1), 駮虬→駮虬(21-2), 神蹟→神跡(26-7)’ 등 5곳이다. 속자도 여러 이본에 쓰였는데, ‘閔影→泌影(2-3), 群仙→群仙(3-2), 雲開→雲開(5-2), 輕濕→輕濕(11-4), 淵底→淵底(13-3), 來青冥→來青冥(16-5), 龕鵬→龕鵬(18-1), 幽沈→幽沉(23-2), 拏入→拿入(28-3), 歸來→歸來(31-2), 隔門→隔門(33-6)’ 등 모두 11곳이다. 통자도 사용되었는데, ‘舜窳→窳窳(16-3)’ 1곳이고, 약자도 보이는 바 ‘鐵笛→鉄笛(29-1)’ 1곳이다. 또한 결자도 나타나는데, ‘湧出(5-6)’에서 ‘湧’자가 빠지거나, 이본에 따라 24구의 ‘邪鱗頑甲毒風腥’ 전체가 삭제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글자는 다르나 문맥상 의미가 통하는 글자들이 여러 곳에 보인다. ‘鰲拏→鰲柱(1-6), 噬山腹→嚙山腹(7-5), 豁舒→哈呀(8-1, 2), 躔列星→森列星(12-5), 太陰之窟→太陰之精(25-4), 絕境→絕域(27-4), 攬神形→攬神形(28-5), 老恠→老蛟(29-6)’ 등 모두 8곳이다.

#### 4. 대교 결과에 대한 분석

12종의 이본을 오자·동자·속자·약자·통자·결자 중심으로 그 변이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자를 이본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김석익의 『심재집』에서는 ‘屬蟲→屬屬(4-2), 噬山腹→齒山腹(7-5), 錦纈殷→錦纈銀(9-7), 晶熒→晶螢(10-7), 玉簫→玉箏(16-2), 宛虹→完虹(17-1)’ 등 6곳이다. ‘屬蟲→屬屬(4-2)’에서 4구가 ‘하룻밤 장대하고 힘차게 천둥소리 요란하다’의 뜻이므로 ‘장대하고 힘참’의 ‘屬蟲<sup>31)</sup>’라고 써야 한다. ‘噬山腹→齒山腹(7-5)’에서는 7구가 ‘파도가 용솟

음치어 산허리를 휘두르다의 뜻으로 '휘두르다'의 '嚙'을 '齒'로 잘못 적고 있다. '錦纈殷→錦纈銀(9-7)'에서는 9구가 '가파르게 새긴 벽에 비단 무늬 아롱지다'의 뜻이므로 '비단 무늬 아롱지다'의 '錦纈殷'이 '錦纈銀'보다 문맥상 더 어울린다. '晶燐→晶螢(10-7)'에서는 10구의 '부상의 해 비쳐 밝은 빛이 빛나다'의 뜻이므로 '밝은 빛'의 '晶燐<sup>32)</sup>'이 역시 어울린다. '玉簫→玉簫(16-2)'에서는 16구가 '통소의 아름다운 소리 푸른 하늘에서 들려오다'의 뜻이므로 '통소의' '玉簫<sup>33)</sup>'가 맞다. '宛虹→宛虹(17-1)'에서는 17구가 '용이 바닷물을 머금어 긴 꼬리를 드리우다'의 뜻이므로 '용'의 뜻인 '宛虹<sup>34)</sup>'으로 써야 문맥이 통한다.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서는 '雲開→雲間(5-2), 錦纈殷→錦纈殷(9-7), 輕濕→輕裘(11-4), 宛虹→頑虹(17-1)' 등 모두 4곳에서 오자가 쓰였다. '雲開→雲間(5-2)'에서는 '구름이 열리다'의 '雲開'가 바른 표기이다. '錦纈殷(9-7)'에서는 '비단 무늬'의 뜻인 '錦纈<sup>35)</sup>'이라고 써야 한다. '輕濕→輕裘(11-4)'에서는 11구가 '많은 구슬 같은 이슬방울이 쏟아지고 촉촉하다'의 뜻이므로 '가볍게 젖다'의 '輕濕'이 맞다.

『패관잡기』(할자본)에서는 '壺中→囊中(12-1), 玉簫→玉蕭(16-2), 鐵笛→鐵留(29-2)' 등 3곳에서 오자가 보인다. '壺中→囊中(12-1)'에서는 12구가 '별천지의 아름다운 옥처럼 많은 별이 운행하다'의 뜻이므로, 호리병 속의 하늘과 같은 '호중천(壺中天) 즉 별천지<sup>36)</sup>'의 '壺中'이 맞는 표현이다. '鐵笛→鐵留(29-2)'에

31) 鄭鳴, 〈津陽門詩〉 祿山此時侍御側, 金雞畫屏當翠幄. 繡羽衣襟日展晶, 甘言狡計愈嬌癡.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4,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3, 699쪽.)

32) 王起, 〈濁水求珠詩〉의 礫終難掩, 晶燐顯見收.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6,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3, 814쪽.)

33) 陶弘景, 〈真誥 3〉 玉簫和我神, 金體釋我憂.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9,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6, 367쪽.)

34) 厲荃, 〈水族, 龍〉, 『事物異名錄』 字彙補, 宛虹, 龍也.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4,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3, 240쪽.)

35) 〈諸夷傳, 高昌〉, 『梁書』 [高昌國] 女子頭髮辮而不垂, 著錦纈纓環環釧.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14,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345쪽.)

36) 〈方術傳 下, 費長房〉, 『漢書』 費長房者, 汝南人也, 曾爲市椽, 市中有老翁賣藥, 縣一壺於肆, 及市罷, 輒跳入壺中, 市人莫之見, 唯長房於樓上觀之, 異焉, 因往再拜, 翁乃與俱入壺



서는 29구가 ‘쇠피리 불어대니 늙은 괴물이 듣는다’는 뜻이므로 주로 은자(隱者)나 고사(高士)들이 부는 피리인 ‘쇠로 만든 피리’의 ‘鐵笛’<sup>37)</sup>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원진의 『탐라지』에서 보이는 오자는 ‘宛虹→完虹(17-1), 鈴屨→鈴鈴(22-7)’ 등 2곳이다. ‘鈴屨→鈴鈴(22-7)’에서는 22구가 ‘아홉 머리 천오가 비틀거리며 간다’는 뜻이므로 ‘비틀거리며 걷는 모양의 ‘鈴屨’<sup>38)</sup>이 맞는 표현이다. 윤시동의 『증보탐라지』와 『남사록』(규장각본)의 오자는 ‘宛虹→完虹(17-1), 太陰→大陰(25-1)’ 등 2곳이다. ‘물속의 굴’<sup>39)</sup> 내지는 ‘어두컴컴 굴’<sup>40)</sup>의 뜻이므로 ‘太陰之窟’은 ‘大陰’이 아니라 ‘太陰’이 바른 표기이다. 『패관잡기』(전사본)의 오자는 『패관잡기』(활자본)처럼 ‘壺中→囊中(12-1)’ 1곳이다.

둘째, 동자를 정본에 가까운 표기를 중심으로 하여 이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群仙→羣仙(3-1), 竊窬→窶窬(16-3), 龕鵬→龕鵬(18-1), 驂虬→驂蚪(21-2), 神蹟→神跡(26-7)’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群仙→羣仙(3-1), 龕鵬→龕鵬(18-1), 驂虬→驂蚪(21-2), 神蹟→神跡(26-7)’ 등에서는 ‘群仙, 龕鵬, 驂虬, 神蹟’ 등이 『충암집』(임자본·병자본·임술본·정해본)이나 『탐라지』(이원진)처럼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사용됨으로써 ‘羣仙, 龕鵬, 驂蚪, 神跡’ 등에 비해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이에 반해 ‘竊窬→窶窬(16-3)’에서는 ‘窶窬’가 『패관잡기』(활자본)에서만 사용되었고 있어 ‘竊窬’에서 ‘窶窬’로 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속자도 여러 이본에 사용되었다. ‘閼影→罔影(2-3), 群仙→群佗(3-2),

中, 唯見玉堂嚴麗, 旨酒甘肴盈衍其中, 共飲畢而出。(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3,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0, 744쪽.)

37) 薩都刺, 〈升龍觀夜燒香印上有呂洞賓老樹精詩〉 鐵笛一聲吹雪散, 碧雲飛過岳陽樓。(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14,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470쪽.)

38) 蘇軾, 〈芙蓉城詩〉 透樓飛步高鈴屨, 仙風鏘然韻流鈴。(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10,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7, 849쪽.)

39) 曹植, 〈蟬賦〉 盛陽則來, 太陰逝兮。(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3,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0, 986쪽.)

40) 范成大, 〈豐都觀詩〉 云有北陰神帝庭, 太陰黑簿囚鬼靈。(위의 책.)

雲開→雲開(5-2), 輕濕→輕濕(11-4), 淵底→淵底(13-3), 來青冥→來青冥(16-5), 羸鵬→羸鵬(18-1), 幽沈→幽沉(23-2), 拏入→拏入(28-3), 老恠→老怪(29-6), 歸來→歸來(31-2), 隔門→隔門(33-6) 등 12곳이다. '泐影(2-3)'은 『패관잡기』(필사본)·『탐라지초본』(이원조)·『심재집』 등 3종의 이본에서만 사용되었고, '群仙(3-2)'은 『증보탐라지』(윤시동)에서만 사용됨으로써 각각 '閼影'과 '群仙'에서 변이되고 있다. 또한 '雲開(5-2)'는 『패관잡기』(전사본)·『증보탐라지』(윤시동)·『심재집』 등 3종의 이본에서만 쓰였고, '雲間(5-2)'이 『탐라지초본』(이원조) 1종의 이본에서만 쓰임으로써 각각 변이된 표기들이다. '輕濕(11-4)'은 『증보탐라지』(윤시동)와 『심재집』 등 2종의 이본에서만 쓰였고, '淵底(13-3)'는 『탐라지초본』(이원조)에서만 적고 있으며, '來青冥(16-5)'은 『탐라지』(이원진)·『증보탐라지』(윤시동)·『남사록』(청음유집본) 등 3종 이본에서만 쓰임으로써 역시 각각 변이된 표기들이다. '羸鵬(18-1)'은 『남사록』(규장각본·청음유집본)·『증보탐라지』(윤시동)·『심재집』 등 4종 이본에 쓰였고, '幽沈(23-2)'은 『증보탐라지』(윤시동)·『남사록』(청음유집본) 등 2종 이본에서만 사용됨으로써 '羸鵬'과 '幽沉'이 앞선 표기이다. '拏入(28-3)'은 『심재집』에서만 표기되었고, '老怪(29-6)'는 『패관잡기』(전사본·활자본) 2종 이본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써 '拏入'과 '老恠'가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歸來(31-2)'는 『탐라지』(이원진)·『증보탐라지』(윤시동)·『남사록』(청음유집본) 등 3종 이본에서만 쓰였고, '隔門(33-6)'은 『증보탐라지』(윤시동)·『패관잡기』(전사본)·『심재집』 등 주로 후대에 간행된 3종의 필사본 이본들에 사용되었다.

넷째, 통자를 이본별로 살펴보면 '窳窳(16-3)'는 『심재집』에서만 사용되어 '窳窳'에서 변이되고 있으며, '稭道(32-3)'는 『패관잡기』(필사본·활자본)에서만 쓰임으로써 '只道'에서 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약자를 이본별로 살펴보면 '鐵笛→鉄笛(29-1)'에서 '鉄笛'은 『증보탐라지』(윤시동)에서만 사용되었고, '鐵笛'은 나머지 이본들에서는 사용되었다. '鐵笛'이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널리 사용됨으로써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며, '鐵笛'에서 '鉄笛'으로 변이되고 있다.

여섯째, 결자를 살펴보면 ‘湧出(5-6)’에서는 『패관잡기』(활자본)에서 ‘湧’자가 빠져 있고, 24구의 ‘邪鱗頑甲毒風腥’는 『충암집』(임자본·병자본·임술본·정해본)·『패관잡기』(전사본·활자본) 등 6종의 이본에 수록되었는데 반해 『탐라지』(이원진)·『증보탐라지』(윤시동)·『탐라지초본』(이원조)·『남사록』(규장각본·청음유집본)·『심재집』 등 6종 이본에서는 결구로 나타난다.<sup>41)</sup>

이 외에도 글자는 다르나 문맥상 의미가 통하는 글자들을 이본별로 살펴보면, ‘鰲拏→鰲柱(1-6)’에서는 ‘鰲拏’이 ‘몹시 기뻐하는 말의 형용’<sup>42)</sup>의 뜻이고, ‘鰲柱’는 ‘자라 기둥’의 뜻으로 문맥상 다 통하는 표현이다. ‘鰲拏’는 『충암집』(임자본·병자본·임술본·정해본)·『탐라지』(이원진)·『증보탐라지』(윤시동)·『남사록』(규장각본·청음유집본)·『심재집』 등 간행 연대가 앞선 9종 이본들에 사용되고 있어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噬山腹→嚙山腹(7-5)’에서 ‘嚙山腹’는 ‘산허리에 다다르다’의 뜻으로 『충암집』(임자본·병자본·임술본·정해본)·『패관잡기』(전사본·활자본) 등 6종의 이본에 표기되었고, ‘嚙山腹’은 ‘산허리를 침식하다’의 뜻으로 『탐라지』(이원진)·『증보탐라지』(윤시동)·『탐라지초본』(이원조)·『남사록』(규장각본·청음유집본) 등 5종의 이본에 표기되었다.

‘豁訝→唵呀(8-1,2)’에서 ‘산의 바위가 험준하다’는 ‘豁訝’<sup>43)</sup>가 『충암집』(임자본·병자본·임술본·정해본)·『탐라지』(이원진)·『증보탐라지』(윤시동)·『탐라지초본』(이원조)·『남사록』(규장각본·청음유집본)·『심재집』 등 10종 이본에 사용되어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입을 버리다’의 ‘唵呀’<sup>44)</sup>는 『패관잡기』(전사

41) 그런데 제24구의 ‘邪鱗頑甲毒風腥’가 삼입됨으로써 <우도가>는 전체적으로 평측법과 운자에 어긋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오히려 이 24구를 빼어버리면 32구 224자가 되어 <우도가>는 제2구나 제4구의 溟이나 霆처럼 짝수구에서 평성의 靑운으로 연속적으로 압운되며 전체적으로 평측과 운자가 정확히 들어맞는다.

42) <天間>, 『楚辭』 鰲戴山拏, 何以安之.(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15,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1324쪽.)

43) 金志章, <鈴山行> 鈴山四繞靑豁訝, 袁江一綫盤脩蛇.(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12,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7, 1160쪽.;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漢語大詞典』 10, 上海辭典出版社, 1994, 1320쪽.)

본·활자본)의 2종 이본에서만 사용되었다.

‘躡列星→森列星(12-5)’에서 ‘많은 별이 운행하다’의 ‘躡列星’, ‘太陰之窟→太陰之精(25-4)’에서 ‘어두컴컴한 굴’의 ‘太陰之窟’, ‘絕境→絕域(27-4)’에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곳’의 ‘絕境’<sup>45)</sup>이 『충암집』(임자본·병자본·임술본·정해본)·『탐라지』(이원진)·『증보탐라지』(윤시동)·『탐라지초본』(이원조)·『남사록』(규장각본·청음유집본)·『심재집』 등 10종 이본에 사용되었는데 반해 ‘많은 별이 늘어서다’의 ‘森列星’, ‘태음의 정기’의 ‘太陰之精’, ‘변방’의 뜻인 ‘絕域’<sup>46)</sup> 등은 『패관잡기』(전사본·활자본)의 2종 이본에서만 사용되어 각각 변이되고 있다.

‘攬神形→懣神形(28-5)’에서는 ‘신성한 형체 우뚝하다’의 ‘攬神形’이 『충암집』(임자본·병자본·임술본·정해본)·『패관잡기』(전사본·활자본) 등 6종 이본에 쓰였고, 역시 ‘신성한 형체 우뚝하다’의 ‘懣神形’은 『탐라지』(이원진)·『증보탐라지』(윤시동)·『탐라지초본』(이원조)·『남사록』(규장각본·청음유집본)·『심재집』 등 6종에 이본에 쓰였다.

‘老恠→老蛟(29-6)’에서는 ‘늙은 괴물’의 ‘老恠’가 『충암집』(임자본·병자본·임술본·정해본)·『탐라지』(이원진) 등 5종에 이본에 표기되었고, ‘늙은 교룡’의 ‘老蛟’가 증보탐라지』(윤시동)·『탐라지초본』(이원조)·『남사록』(규장각본·청음유집본)·『심재집』 등 5종의 이본에 표기되었다.

이들 사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오자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은 이본은 『충암집』이다. 그러나 『충암집』은 비교적 간행연대가 큰 차이가 없는 『탐라지』(이원진)에 비해 제24구의 ‘邪鱗頑甲毒風腥’가 더 삽입됨으로써 총 33구 231자가 되어버려 불완전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즉 제24구의 ‘邪鱗頑甲毒風腥’가 삽입되었을 때 <우도가>는

44) 李群玉, 〈潯陽觀水詩〉 朝宗漢水接陽臺, 唵呀填坑吼作雷.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3,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0, 151쪽. ;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漢語大詞典』 3-上, 上海辭典出版社, 1994, 364쪽.)

45) 陶潛, 〈桃花源記〉 自云先世避秦時亂, 率妻子邑人來此絕境, 不復出焉, 遂與外人間隔.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10,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7, 1310쪽.)

46) 〈七法〉, 『管子』 不遠道里, 故能威絕域之民, 不險山河, 故能服恃固之國. (위의 책, 1314쪽.)

전체적으로 평측과 압운에 어긋난다. 오히려 이 24구를 삭제하면 <우도가>는 32구 224자가 되어 제2구나 제4구의 溟이나 震처럼 짝수구에서 평성의 靑운으로 연속적으로 압운되면서 다음의 <표 2>처럼 전체적으로 평측법과 운자가 정확히 일치한다.

표 2. <우도가>의 평측과 압운

句	漢詩	우도가			
	平仄				
	韻字				
1-4	漢詩	瀛洲東頭鰲抃傾	千年閣影涵重溟	群仙上訴攝五精	羸蟲一夜轟雷霆
	平仄	평평평평평거상	평평거상평거평	평평상거입상평	거거입거평평평
	韻字	庚尤東尤豪霰梗	先先寘梗覃宋青	文先養遇葉霰庚	寘寘寘禡庚灰青
5-8	漢詩	雲開霧廓忽湧出	瑞山新畫飛王庭	溟濤崩海噬山腹	銜卻洞天深雲局
	平仄	평평거입입상입	거평평거평평평	평평평상거평입	평평거평평평평
	韻字	文灰遇藥月腫質	寘刪眞卦微陽青	靑豪蒸腫霽刪屋	覃麻送先侵文靑
9-12	漢詩	稜層鏤壁錦纈殷	扶桑日照光晶燦	繁珠凝露濺輕濕	壺中瑤碧躡列星
	平仄	평평거입상입평	평평입거평평평	평평평거거평입	평평평입평입평
	韻字	蒸蒸有錫寢屑文	虞陽質嘯陽庚靑	元虞蒸遇霽庚緝	虞東蕭陌先屑靑
13-16	漢詩	瓊宮淵底不可見	有時隱隱窺窓櫺	軒轅奏樂馮夷舞	玉簫竽籟來靑冥
	平仄	평평평상입상거	상평상상평평평	평평거입평평상	입평상상평평평
	韻字	庚東先齊物咍霰	有支吻吻支江靑	元元宥覺東支霰	沃蕭篠篠灰靑靑
17-20	漢詩	宛虹飲海垂長尾	龜鵬戲鶴飄翅翎	曉珠明定塵區黑	燭龍爛燐雙眼靑
	平仄	상평상상평평상	평평거입평거평	상평평거평평입	입평거입평상평
	韻字	阮東寢賄支陽尾	虞蒸寘藥蕭寘靑	篠虞庚眞眞虞職	沃冬翰葉江潛靑
21-24	漢詩	驂虬踏躡多娉婷	天吳九首行玲嫻	幽沉水府囚百靈	邪鱗頊甲毒風腥
	平仄	평평입상평거평	평평상상평평평	평평상상평입평	평평평입입평평
	韻字	覃尤合阮歌敬靑	先虞有有庚靑靑	尤侵紙霰尤陌靑	麻眞刪洽沃東靑
25-28	漢詩	太陰之窟玄機停	仇池禹穴傳神蹟	惜許絕境亂圖經	蘭橈擎入攬神形
	平仄	거평평입평평평	평평상입평평입	입상입상평평평	평평평입상평평
	韻字	泰侵支月先微靑	尤支霰屑先眞陌	陌語屑梗軟虞靑	寒蕭摩緝腫眞靑

句	漢詩	우도가			
	平仄				
	韻字				
29-32	漢詩	鐵笛吹裂老恁聽	水咽雲溟悄愁人	歸來恍兮夢未醒	嗟我只道隔門限
	平仄	입입핑입상기평	상평핑평상평평	핑평상평거기평	평상상상입평상
	韻字	屑錫支屑皓卦青	紙先文青篠尤眞	微灰養齊送未青	麻笱紙皓陌元潛
33	漢詩	安得列叟乘風冷			
	平仄	핑입입상평평평			
	韻字	寒職屑有蒸東青			

뿐만 아니라 문맥상으로도 제24구는 제23구와 대구가 되지 않고 있다. 제24구를 제23구까지 연결하여 보더라도 ‘수중세계에 깊이 숨어 온갖 신령 가두었으니, 비스듬히 난 비늘과 단단한 껍질에 비린내 독하도다.’로 해석되어 제23구와 제24구가 문맥상 통하지 않는다. 즉 ‘비스듬히 난 비늘과 단단한 껍질에 비린내 독하도다.’의 제24구가 ‘수중세계에 깊이 숨어 온갖 신령 가두었으니’의 제23구와 대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23구를 제25구와 연결시켜 ‘수중세계에 깊이 숨어 온갖 신령 가두었으니, 태음의 굴 하늘의 뜻 멈추었네.’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면서 대구가 된다. 따라서 제24구의 ‘邪鱗頑甲毒風腥’은 『충암집』 간행 과정에서 잘못 삽입된 것으로 보이며, 칠언배율의 <우도가>가 불완전한 구성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우도가>의 이본은 크게 두 가지 계통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충암집』 계통이고 다른 하나는 『탐라지』(이원진) 계통이다. 이에 따라 제24구가 수록되어있는 『패관잡기』(전사본·활자본)는 『충암집』 계통인 반면 나머지 제24구가 결구로 되어있는 『증보탐라지』(윤시동)·『탐라지초본』(이원조)·『남사록』(규장각본·청음유집본)·『심재집』 등은 『탐라지』(이원진) 계통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우도가>가 크게 두 가지 계통이 존재하는 것은 김정이 제주에서 유

배생활하면서 창작한 <우도가>가 제주를 중심으로 전해져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증보탐라지』(윤시동)·『탐라지초본』(이원조)·『남사록』·『심재집』 등은 모두 제주에서 쓰여졌거나 간행된 이본들로 1653년 간행된 『탐라지』를 저본으로 하였을 확률이 높다. 이에 반해 기재 신광한이 편찬한 정고본에 공주목사 허백기가 구한 초고와 함께 교정하여 1552년 간행한 『충암집』 초간본은 그 후에 간행된 『충암집』이나 『패관잡기』 등의 저본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

넷째, 다른 이본들과 비교할 때 『패관잡기』(전사본·활자본)에서는 나름대로 독특한 표기들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躔列星(12-5)’을 ‘森列星’, ‘太陰之窟(25-4)’을 ‘太陰之精’, ‘絕境(27-4)’을 ‘絕域’, ‘只道(32-3)’를 ‘秣道(32-3)’로 표기함으로써 가장 독특한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시대를 달리하면서 수록 문헌에 따라 적잖은 변이 내지는 착종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우도가>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정본을 제대로 파악하는 원전 연구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다. 따라서 최초의 원전을 주로 정본으로 확정하는 시가는 작품 연구가 원전 연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보편성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본 간의 오자·동자·속자·약자·통자·결자 등의 면밀한 대교 등을 통해서 정본을 확정하되 <우도가>처럼 결자의 단서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합본(校合本)을 만들고, 이 교합본의 토대 위에서 작품세계 등의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김정의 <우도가>에 대한 이본을 고찰하여 이본의 변이 양상을 파악하고 이본 간의 계통을 살펴보았다.

김정의 <우도가>를 수록하고 있는 문헌들은 크게 『충암집』처럼 김정의 작

품들을 수집하여 간행한 충암집류, 『탐라지』처럼 제주 지지에 수록된 탐라지류, 『남사록』처럼 저자가 제주에 안무어사로 왔던 경험을 기록한 남사록류, 『패관잡기』처럼 당시 시인 묵객 등의 언행 등에 관한 사실들을 듣고 본 대로 기록한 패관잡기류, 『심재집』처럼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한 개인의 평생에 걸쳐 정리한 문학과 역사를 기술한 심재집류 등으로 나누어진다.

충암집류에는 임자본(1552)·병자본(1636)·임술본(1922)·정해본(1947)과 간행 연대가 정확하지 않은 조선시대 말기에 병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된 목활자본 등이 있는데, <우도가>의 이본 간에 변이 양상은 없으나 다음에 수록된 <승려의 시축에 쓰다>의 쌍행주 등에서는 변이가 일어난다. 탐라지류에는 이원진의 『탐라지』(1653), 윤시동의 『증보탐라지』(1765), 이원조의 『탐라지초본』(1843) 등이 있는데, 이본 간에는 부분적인 글자의 변이가 나타난다. 남사록류에는 규장각본 『남사록』과 청음유집본 『남사록』 등이 있는데, 부분적인 글자의 변이가 나타나며, 『탐라지』 계통이다. 패관잡기류에는 전사본 『패관잡기』와 활자본 『패관잡기』 등이 있는데, 역시 『탐라지』 계통이다. 심재집류에는 김석익의 『심재집』이 있는데, 탐라지류 계통이다.

오자·동자·속자·약자·통자·결자 등을 중심으로 이본을 대교한 결과 『충암집』 소재 <우도가>는 제24구 ‘邪鱗頑甲毒風腥’가 『탐라지』 계통의 이본에 비해 더 삽입됨으로써 총 33구 231자가 되어 칠언배율의 구성에서 어긋나고 있었다. 오히려 이 24구가 결구되었을 때 <우도가>는 총 32구 224자의 완전한 칠언배율이 되어 제2구나 제4구의 溟이나 靈처럼 짝수구에서 평성의 靑운으로 연속적으로 규칙을 이루었다. 또한 문맥상으로도 제23구와 제24구는 대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제24구는 기재 신광한이 편찬한 정고본에 공주목사 허백기가 구한 초고와 함께 교정하여 『충암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삽입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제24구를 제외한 <우도가>의 교합본을 정본으로 삼고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金尙憲, 『南槎錄』(奎章閣本)
- 金尙憲, 金禧東 譯, 『南槎錄』, 永嘉文化社, 1992.
- 金尙憲, 『南槎錄』(影印), 濟州文化院, 2008.
- 金錫翼, 『心齋集』1(影印), 濟州文化社, 1990.
- 金淨, 『冲庵集』(大田市立博物館本)
- 金淨, 『冲庵集』(奎章閣本)(濟州道, 『濟州史料叢書( I )』(影印), 濟州道, 1998.
- 金淨, 『冲庵集』(國立中央圖書館本)
- 金淨, 『冲庵集』(高麗大學校圖書館本)
- 金淨, 金鍾燮 譯, 『國譯 冲庵集』下, 冲庵文簡公宗中, 1988.
- 김행옥, 「탐라지 해제」,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담수계 편, 『증보탐라지』, 김찬흠 외 9인 공역, 제주문화원, 2005.
- 民族文化推進黨,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23(思齋集·冲庵集·陽谷集·松齋集), 景仁文化社, 1990.
- 宋時烈, 『宋子大全』 卷一百三十七(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공간)
- 魚叔權 外, 『大東野乘』(奎章閣本)
- 어숙권 외, 『국역 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회, 1971.
- 王力, 洪瑀欽 編譯, 『漢詩韻律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3.
- 尹著東, 『影印增補耽羅誌』(日本天理大學圖書館本), 濟州特別自治道·濟州文化院, 2016.
- 尹著東, 김영길 역, 『國譯增補耽羅誌』, 濟州特別自治道·濟州文化院, 2016.
- 李元鎭, 『耽羅志』(影印),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1.
- 李元鎭, 『耽羅志』(影印), 푸른역사, 2002.
- 李源祚, 『耽羅誌草本(上)』(影印), 濟州教育博物館, 2007.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臥遊錄』(韓國學資料叢書 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許筠, 『許筠全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81.
-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3,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0.
-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4,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3.

-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6,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3.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9,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6.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10,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7.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12,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7.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14,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15,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원영섭, 『俗字·略字辭典』, 以會文化社, 2007.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漢語大詞典』 3-上, 上海辭典出版社, 1994.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漢語大詞典』 10, 上海辭典出版社, 1994.

## 2. 논저

- 朴守川, 「冲庵 金淨의 삶과 詩文學」, 『尤庵論叢』 2,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2009, 121~154쪽.  
梁淳秘, 「冲庵의 齊州流配漢詩小考」, 『論文集』 20(인문학편), 제주대학교, 1985, 47~62쪽.  
林采明, 「冲庵 金淨 詩의 研究」, 『漢文學論集』 15, 槿域漢文學會, 1997, 1~37쪽.

| Abstract |

## A Study on Different Version of Kim Jeong's <Woodoga>

Yoon, Chi-boo

This is a study on different version of <Woodoga>, a Chileonbaeyul that sang Woodo based on the story about Woodo, an eastern island of Jeju, told by Bang Soonhyeon, a brother-in-law of Jeju Pangwan, when Chung-am Kim Jeong was exiled to Jeju. Through this, this research intended to comprehend the system of original version and different version. The books that included Kim Jeong's <Woodoga> are largely divided into Chung-amjib, Tamraji which was included in Jeju Jiji, Namsarok that recorded the writer's experience in Jeju as a public officer, envoys to Ming Dynasty or custom of Yodong or Japan, Paegwanjabgi, a record of speech and behavior of poets and painters of that period, and Shimjaejib which recorded the literature and history that an individual arranged through one's life while passing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era. Chung-amjib included different versions such as Yimjabon·Byeongjabon·Yimsulbon·Jeonghaebon, which had no misspelling in the different versions, however Pyeongcheuk and Unja were not unified after the phrase 24 due to incomplete composition of 33-gu 231-ja. Tamraji included Lee Wonjin's Tamraji, Yun Shidong's Jeungbotamraji, and Lee Wonjo's Tamrajichobon, however on the whole Pyeongcheuk and Woonja were continuously rhymed with Cheong(靑) rhyme of Pyeongseong just like Myeong(溟) or Jeong(靚) of the phrase 2 or 4 by conclusion of phrase 24, differently from Chung-amjib. Namsarok included Gyujanggak version and Cheong-eumyujib version, which were Tamraji series, however Paegwanjabgi included Jeonsa version and print version, which were Chung-amjib series. Shimjaejib series was Tamraji series as Namsarok series. Significant modification appeared mainly with Oja·Dongja·Sokja·Yakja·Tongja·Gyeolja, etc. among different versions.

**Key words** : Woodoga, Kim Jeong, Chung-amjib, Tamraji, Namsarok, Paegwanjabgi, Shimjaejib

투고일 : 2017년 7월 4일    심사기간 : 8월 2일 – 8월 15일    게재확정일 : 8월 16일
--

www.kci.go.kr

